

2021년 12월 [제22호]



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백합동문회보







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백합동문회보

2021년 12월 [제22호]

목 차 / CONTENTS

권두언.....	2
축 사.....	4
총동문회 소식	5
모교 소식	10
자랑스러운 동문	13
저는요, 요즘	16
O클릭- 방주교회	19
동문동정.....	22
우리들의 갤러리 - 디카 · 詩	23
코로나 극복기	29
동문 글마당/시	33
동문 글마당/수필	36
산악회 후기	45
총동문회 연회비, 기부금 보고.....	47
만원의 행복 장학금 보고	48
작은물방울 장학금 보고	52
(재)동문장학회 보고	53
총동문회 활동 보고	56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주순희 20기

사랑하는 총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에 동문님들과 각 가정 모두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한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첫해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동문님들의 협조와 사랑으로 9월 이사회와 12월 총동문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예년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치렀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에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함으로써 총동문회에서는 임원회의나 이사회 등을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간 계속되는 바람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거쳐 저희 회장단이 임기를 1년 더 유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총동문회에서는 입학식 졸업식 백합제 등의 모교 행사에는 그대로 참석을 하였고, 수능격려 행사에 면대면 만남은 가질 수 없었지만 수능떡과 음료 격려의 선물을 주는 일들은 예년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총동문회 산하 장학금지급의 일들도 그대로 다 수행하였고 동문님들의 경조사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위드코로나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어저께는 2년 만에 활동이 재개된 백합산악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나오신 동문들이 서로 서로 반가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만남을 고대하고 계셨는지, 또 동문회 안에서의 소모임 활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가면서 동문회의 선후배 모임은 언제 어느 때 만나도 반갑고 따듯한 배려와 사랑이 깃든 맞춤형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많은 동문님들을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존경하는 고문님들과 선후배님들의 사랑과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대표님들과 부회장님들, 이사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특히 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해온 보석 같은 실행위원들의 수고와 열정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20기 동기들의 아낌없는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선후배님들의 넘치는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새 회장님과 임원들이 이끌어갈 앞으로의 총동문회 또한 기대가 큼니다.

동문여러분께서 하루하루 매순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합 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수도여자고등학교 교장 이진영

수도여자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동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6년 중등학교 교사로 교직에 첫발을 디디어 35여 년간 교사, 장학사, 교감, 해외 교육원장, 장학관, 중학교 교장의 교육 전문직으로서의 자리를 두루 거쳐 2021년 3월 1일 자로 수도여자고등학교의 제21대 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도여고에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여성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일에 동문 여러분과 함께 제 남은 교직 생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도여자고등학교 동문회가 한 해를 마감하며 백합동문회보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도 동문 여러분의 활동에 제약과 한계가 많았음에도 각계각층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어려움을 딛고 활발히 활동한 모습들은 후배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는 산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간의 동문 여러분의 노력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수도여고 동문회장님이신 주순희 회장님과 회장단에서는 동문회를 대표하여 늘 학교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자리하며 후배들에게 든든한 동문회의 존재를 알게 하였고, 수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입생 입학 장학금 수여 및 격려 말씀, 학업 우수 장학금 수여, 백합제 축하와 격려 말씀, 수능 격려품 및 격려 말씀 등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백합 동문회 여러분!

학교는 동문 여러분의 모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에 힘입어 선배님들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서 명실공히 명문을 넘어 명품 학교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담대한 여정에 동문 여러분께서 늘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2021년 백합동문회보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백합 동문회의 발전과 동문 모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제72회 모교 졸업식 참석

2020년 2월 7일, '2019년도 제72회 모교 졸업식'이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염려로 내빈과 학부모의 참석을 배제하고 행사장소도 상아당이 아닌 시청각실에서 3학년 각 교실에 영상으로 전달하는 형식을 취했다.

총동문회에서는 주순희 회장과 실행위원 3명, 이주수 장학재단사무국장과 재무가 참석했다.

졸업식이 시작되기 전, 교장실에서 졸업생 4명에게 '작은물방울'에서 주는 졸업축하금을 전달했다. 작은물방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3년 동안 매달 장학금을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고 덕분에 4명 모두 원하는 대학에 무사히 합격했다'며 고마워했다. '작은 물방울'의 선물을 잊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도 전달 받았다.

졸업식은 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주순희 회장은 격려사에서

- 1) 졸업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즐겁게 도전하고 꿈을 가지라고 말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도전하다가 잠깐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젊음의 특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 2) 이제부터는 스스로 찾아가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길을 가야한다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은 맞는지 가끔씩 되돌아보고 목적과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다.
- 3) 여러분은 소중한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며 아울러 여러분의 삶이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아름다운 삶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 많이 웃고 즐기고 사랑하고 행복하라고 말하고 나서

5) 우리는 명문 수도인이라고 강조했다. 동문으로서 모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도 부탁했다. 앞으로는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으로서 모교를 크게 빛내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격려사를 마쳤다.

이어 326명 졸업생들이 동문회 입회선서를 하고 총동문회장이 허락을 하는 동문회 입회식이 있었다.

다음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졸업생에게 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해당 이종숙 장학생 1명에게 3백만 원을, 정지홍 아네스 장학생 1명에게 2백만 원, 총동문회 장학생 8명에게 각각 2백만 원의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 2020년 모교 입학식 참석

2020. 4. 14(화) 모교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다.

3월에 있어야 할 입학식이 올해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증가 위험으로 인하여 약 한 달 반을 늦춰 시청각실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총동문회에서는 주순희 회장과 실행위원 세 명이 참석하여 후배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입학식에는 동문회 외에 다른 내빈 참석은 없었고 교장선생님과 고1 담임 선생님, 신입생 대표 및 방송반 학생 10여명만 참석하여 간략하게 진행했다.

주순희 회장은 축사에서

- 1)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입학식을 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즐겁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 지금 이시간은 꿈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축복의 시간이며 신입생 여러분은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출발선에 서있다고 말했다.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라는 말이 있다며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꿈을 그려보라고 권유하고 각자의 노력에 따라 각기 다른 빛깔과 다른 향기의 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많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듯 하루하루가 모여 각자의 인생이 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학창시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 졸업하는 3년 후에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멋진 여성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했다.

이어서 우수 신입생 11명에게 '만원의 행복'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수여식을 마치고 주순희 회장은 동문회 장학금에 대하여 소개했다.

- 1) 우수 신입생에게 주는 '만원의 행복 장학금'과
- 2)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작은 물방울 장학금'이 있으며
- 3) 총동문회에서는 별도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장학금 등이 있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 4) 이렇게 든든한 대선배들의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고 말하고 즐겁고 행복한 학창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루빨리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284명 신입생 여러분의 수도여고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한다.

■ 2020년 제1차 기대대표회의 개최

2020년 11월 11일(수) '경복궁 도곡점'에서 실행위원 포함 기대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기대대표회의가 있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내려감에 2020년 첫 번째 기대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1) 주순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대대표의 노력에 따라 기의 단합 및 총동문회의 활성화가 좌우된다고 말하면서 작년(2019년)에 이사회 및 송년회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최다인원이 참석했던 것도 모두 기대대표 여러분의 힘이었다고 감사와 치하의 인사를 했다.

2) 주순희 회장은 참석자를 소개하고 나서 회의를 직접 진행하면서 올해는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해로 차기 회장 후보는 22기 이지수 동문으로 결정되었음을 발표했다. 기 순서대로 한다면 차기 회장은 21기에서 추대되어야 하나 21기에서는 기권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그 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현 회장의 활동이 제한되어 계획했던 일을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그 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3)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임원회의나 이사회 등의 모임은 열지 못했지만 그 외 회장단이 활동한 사항을 보고했다. 모교 졸업식, 입학식, 동문들의 전시회 참석, 장례식 조문, 그 외 동문회에 기여한 동문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위로를 함께 했음을 보고했다.

4)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년과 같이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은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매년 개최하던 총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차

기회장 인준을 위한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시기는 12월 8일로 정했음을 발표했다.

- 날짜 : 2020년 12월 8일 12시
 - 장소 : 엘타워 디오디아
 - 참석대상자 : 고문, 기대표, 부회장, 단체장, 실행위원
- 5) 이순자 재무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회비와 이사회비는 면제하고 기연회비는 납부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기대표 여러분의 의견을 물었다. 기연회비는 납부하고 임원회비는 생략하자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 6) 기대표들의 기 동정 발표와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마쳤다.

■ 2021년 제73회 모교 졸업식 참석

2021년 2월 5일, 제73회 모교 졸업식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2월 3일 시청각실에서 영상을 녹화했다. 총동문회에서는 2021년 2월 3일 주순희 회장과 정혜숙 총무, 이순자 재무가 졸업식 영상 녹화 장소에 참석하였다. 주순희 회장은 축사에서

‘졸업생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해 그 어떤 졸업생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더 큰 힘이 길러졌을 것이라 생각하며 격려했다. 졸업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어 설렐 것이라’며 ‘각자 가는 길이 다르더라도 그 길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해 즐겁게 도전하라고 권유하고 꿈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도전이 잠깐 실패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그것이 곧 젊음의 특권이라고

말했다. 많이 웃고 많이 즐기고 사랑하고 행복하라며 격려했다. 후배 여러분은 졸업과 동시에 총동문회에 입회하게 된다고 말하고 사회에 나가면 동문으로서 관심과 사랑으로 모교를 더욱 빛내달라고 당부하며 축사를 마쳤다.

졸업식을 마친 후 졸업생들은 두 반씩 나누어서 서로 다른 시간에 학교에 나와 졸업장을 받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녹화를 마친 후 모교 세미나실에서 작은물방울 장학생에게 주는 졸업 축하금 전달이 있었다. 주순희 회장은 졸업생 3명에게 축하금을 수여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축하금을 받은 학생들은 3년 내내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선배님들께 고마워하는 마음을 손 편지에 담아 전하고 앞으로 어디서든지 도움이 되는 어른이 되겠다고 감사인사를 했다.

2021년 2월 4일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졸업생에게 동문 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전달식’ 녹화가 있었다. 장학증서 수여는 교장선생님께 일임하여 교감선생님과 3학년 부장선생님 참석하에 진행되었다. ‘혜당 이종숙 장학생’ 1명에게는 3백만원의 장학금을, ‘정지홍 아네스 장학생’ 1명과 ‘동문장학회 장학생’ 8명에게는 각각 2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 후배들이 사회에 나가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원한다.

■ 전근하는 모교 김연배 교장선생님께 방문인사

2019년 3월부터 2년간 수도여고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김연배 교장선생님께서 2021년 3월 1일 관악구 낙성대에 있는 과학관으로 전근하게 되었다. 새 교장선생님은 2021년 3월 2일 반포중학교에서 오시게 되었다.

총동문회에서는 2월 25일(목) 주순희 회장과 정혜숙 총무, 이순자 재무가 모교를 방문하여 김연배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전별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그동안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하고 새로운 곳으로 영전하게 되어 기쁘다는 축하인사를 드렸다.

교장선생님께서서는 떠나게 되어 매우 섭섭하다고 말하고 동문회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신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 어느 학교보다 예쁘게 수도여고를 고치는 것을 끝으로 2년 동안 교장으로서 수도여고를 위해 세웠던 계획을 모두 이루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교가 아름답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서 교정을 둘러보라고 하며 일일이 설명하고 안내했다. 본관 1층 현관은 현대적으로, 2층과 3층에는 학년 별로 휴게실을 설치하여 보라 연두색 등 칼라풀한 색깔로 카페 분위기가 나게 만들었고 화장실 문과 타일 벽 등을 예쁘고 깔끔하게 리모델링했으며, 교장실과 행정실, 교실의 문과 의자 등을 모두 다양한 색으로 바꿔 얼마나 세련되고 분위기가 좋은 지 탄성이 절로 나왔다. 영화감독으로부터 교정을 영화 배경으로 하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했다.

여고 시절을 이런 교정에서 공부하면 훨씬 꿈도 많아지고 감성도 풍부해져서 행복할 것 같았다. 이런 일을 해내신 김연배 교장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다시 한 번 영전을 축하드리며 교장선생님 앞날에 더 많은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 2021년 모교 입학식 참석 및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과 인사

2021년 3월 2일(화) 모교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다. 총동문회에서는 주순희 회장과 정혜숙 총무, 이

순자 재무가 참석하여 축하했다.

식이 시작되기 전 교장실에 들러 새로 부임한 이진영 교장선생님과 인사를 나눴다. 새 교장선생님께서서는 매우 활달하고 열정이 많은 분으로 느껴졌다. 전 근무지였던 반포중학교에서는 동문회가 없었는데 수도여고는 동문회가 대단히 활발하고 잘 운영되고 있기로 유명하다며 명문학교라 다른 것 같다고 인사했다. 어느 학교보다 동문회 장학금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소문나 있고 교사들이 수도여고에 오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용수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동문회의 활동에 대하여 많은 칭찬을 했다.

주순희 회장은 동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장학재단 장학금, 만원의 행복 장학금, 작은물방울 장학금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입학식은 시청각실에서 영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신입생은 각 반에 설치되어 있는 TV를 통해 참여했다.

주순희 회장은 축사에서 명문 수도인이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입생 여러분의 꿈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출발선이라고 말하면서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라고 했다며 저마다 타고난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꿈을 그려보라고 권유했다. 후회없는 즐거운 학창 시절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졸업하게 되는 3년 후에는 자신감 넘치는 멋진 여성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10명의 신입생에게 만원의행복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275명의 신입생 후배 여러분에게 축하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 주순희 회장 임기 1년 유임 발표

2021년 3월 20일, 주순희 총동문회장은 2021년 말까지 회장 임기를 1년 더 연장하여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주순희 회장은 발표문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되어 올해 3월중이라도 차기 총동문회장의 인준을 위한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준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없는 비상사태이고 인준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고민과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 한 결과 올해 말까지 현재 회장단이 유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저와 저희 회장단은 올 한 해도 총동문회와 모교를 위하여 저희들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동문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했다.

그동안 거리두기 수칙이 점점 강화된 관계로 인준을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 여러 번 모임공지 및 취소, 연기를 반복해 오다가 결국 차기회장 인준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따라서 주순희 회장은 2019년 1월 1일 총동문회장에 취임하여 2020년 12월 31일로 2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장을 1년 더 연장하여 맡게 되었다.

■ 2021년 모교 백합제 참석

2021년 8월 27일 9시, 모교에서 수도인의 축제인 제48회 '백합제'가 열렸다.

총동문회에서는 주순희 회장과 정혜숙 총무, 이순자 재무가 참석하여 축하하고 격려했다.

교장선생님께서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포기하게 할 수 없어 예년보다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백합제를 개최하기

로 했다'며 학부모들이 참여하던 바자회는 생략하고 학생들만 참여하는 행사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개인계발의 작품을 본관 건물에 전시하였고 공연은 미리 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실에서 즐기는 방법을 택했다. 개막 및 커팅식이 끝나고 나서 교장선생님과 학생회장은 작품을 일일이 설명해 주며 전시실을 안내했다. 백합제 팸플릿 표지 및 포스터는 전교생에게 공모했는데 1학년 학생의 작품이 채택되었다고 했다. 관람에 참여했던 학부모들께서는 학생들의 작품이 예년보다 풍성하고 질도 높아졌다고 칭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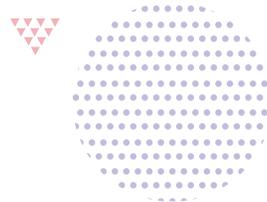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랑스러운 '백합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음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찬사를 보낸다.

■ 2021년 수능시험을 앞둔 모교 수험생 격려

2021년 11월 17일 수능을 앞둔 모교 고3 후배들에게 격려의 뜻으로 떡과 음료 및 수도여고 로고 핸드폰고리를 전달했다. 후배들 모두에게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 2021년 특별임원회의 개최

2021년 12월 8일, 차기 총동문회장 인준을 위한 '특별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졸업식

2021년 2월 5일 (금). 수도여고 305명의 제73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이로써 수도여고 누적 졸업생은 35,713명이 되었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강당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함께 모여 진행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졸업생들은 각자 집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 교장선생님과 수도여고 총동문회장님의 축하 인사, 재학생과 졸업생의 송사와 답사를 시청하였다. 수도여고 총동문회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은 전날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전달하였다.



학교에서는 영상 시청이 끝난 후 시차를 두고 학생들을 등교하게 하여 각 반 교실에서 담임선생님들께서 졸업장, 앨범, 각종 상장 그리고 졸업 기념품을 나누어 주면서 공식적인 졸업식은 끝나게 되었다.

방역 차원에서 졸업생 외에는 학교에 등교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년처럼 가족들이 축하해 주는 꽃다발도 없었고 가족사진 촬영도 없었다.



한편, 3학년 선생님들은 간편하게 치르게 된 졸업식에 못내 안타까워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졸업 축하 영상을 만들어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등교한 졸업생들을 위해 중앙 홈페이지에 포토존을 꾸미기도 했다. 간격을 두고 등교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포토존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답소를 나누는 등 적극 참여하면서, 졸업생과 선생님들은 예년과 다르게 진행되는 졸업식에 많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서로의 졸업을 명랑하게 축하해 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2021학년도 제73회 졸업식은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2021학년도 입학식

2021년 3월 2일,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수도여자고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올해 입학식에는 입학생 전체 257명 중 입학생 대표 오성현 학생과 '만원의 행복 장학금'을 받는 10명의 학생들이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나머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방역 지침에 따라 영상을 통해 입학식을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를 대표하여 이진영 교장선생님, 박정란 교감선생님, 김성숙 행정실장님이 참석하였으며, 동창회 대표 주순희 총동문회 회장님과 몇 분의 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

다. 특히 동창회장님이 매년 입학생에게 지급하는 '만원의 행복 장학금(1인당 50만원)'과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학생들을 격려하여 동창회 선배님과 후배 신입생 사이에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1년간 학생들을 지도하실 담임선생님들께서 학생에게 축하 인사를 하였으며, 1학년 부장 나우철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들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조출한 가운데에서 신입생들을 축하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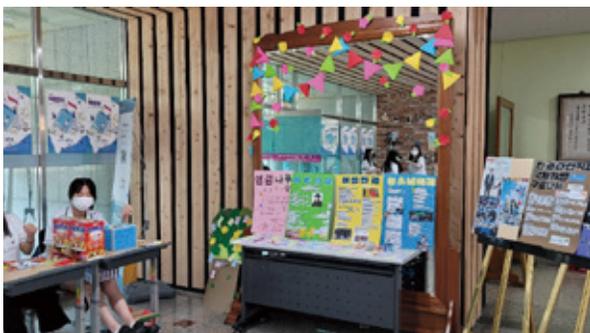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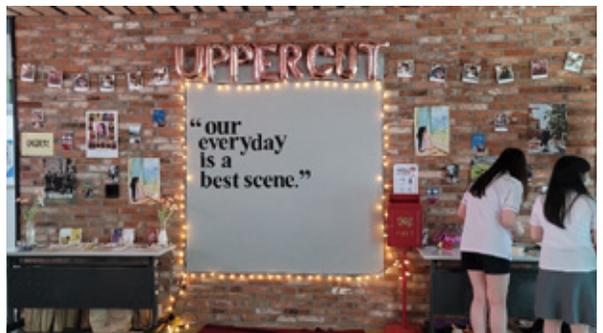
백합제

2021년 8월 27일, 기세가 꺾이지 않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수도여고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제48회 백합제가 시작되었다.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어수선한 상황이라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진행된 학생들 활동이 무사히 결실을 맺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작년에 비해 올

해는 온라인 공연 한마당뿐만 아니라 22개 동아리의 전시 부스 운영과 75대 학생회 주최 이벤트 행사까지 진행되었다. 행사 진행은 학생회와 모든 학생들의 협조로 철저한 방역에 힘쓰며 진행되었다. 비록 예전 같은 축제 분위기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었으나 학생들의 정성과 열정을 담은 행사

이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학교 활동으로써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에 학생들의 축제를 축하하고 격

려하기 위하여 소수이지만 동창회를 비롯한 몇몇 외부인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다.



김정원(정숙) 선생님을 뵙고



김정숙 3기

단풍 유난히 고운 날, 우리는 선배이자 스승이신 김정원 선생님의 근황이 궁금해 선생님을 뵈러 갔다. 분당 서현역 근처, 선생님께서 예약해놓으신 일식집(배 들어온 집)에서 만남을 가졌다. 선생님께서는 아흔의 연세에도 여전히 곱고 건강하신 모습이어서 반갑고 감사했다. 멀리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며 맞아주시는 미소도 변함이 없으셨다. 예쁜 모자에 우리 만나려고 화장도 조금 했다며 소녀처럼 웃으셨다.

♣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식사는 하루 두 끼, 근육통이 좀 있지만 매일 산책과 스트레칭, 스쿼트 운동을 열심히 하며 이겨내고 있다고 하셨다.

동기동창 선배님들의 근황을 여쭙보니 많이 돌아가시고 몇 분 연락하며 지내는데, 그 중에서 김옥순 선배님은 친구들의 일을 본인의 일처럼 관심을

보이는 ‘진국친구’라 하셨다.

♣ 학교 다니실 때의 에피소드는?

선생님께서서는 포항에서 태어나셨다. 포항여중을 다니시다가 서울의 수도여고로 전학, 1년 반 만에 6.25를 맞았고, 포항으로 피란, 포항여고 부산임시 학교 재학 중 환도, 수도여고를 졸업하셨다. 에피소드랄 것도 없고, 전쟁 통에 피난학교에서의 생활은 꿈을 잃어버린 절망의 어두운 기억만 남아있다고 하셨다.

선생님께서서는 1951년 연세대학교영문과 입학, 1955년 졸업, 수도여중고교에 영어선생님으로 첫 부임하셨다. 당시엔 방순경 교장선생님이 계셨고, 문도준 선생님은 교무주임으로 계실 때인데, 방순경 교장선생님의 총애를 받으며 5~6년 동안 수도여중고교에 근무하셨다. 후에 연세대학교대학원, 명지대학교대학원을 졸업, 성균관대학교와 명지대

학교에 출강하셨다.

선생님께서 수도여중고에 첫 부임해 오셨을 때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담임선생님으로, 영어선생님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품위와 다정함과 따뜻한 아름다움은 우리들 학창시절의 추억과 함께 오랫동안 간직될 것이다. 70대 후반의 제자들에게서 받는 꾸준한 존경과 사랑이 무척 고마워 가족과 친구들에게 늘 자랑한다고 하셨다.

♣ 시인으로서의 삶은 어떠셨는지

선생님께서 1985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으로 『시린 손을 닦으며』 『시간의 순례』 『다른 하늘에서도 넌 꽃이었느니』 『虛의 자리』 『늦가을 햇살이 참 따뜻하구나』 시선집 『삶의 지느러미』 한영시집 『분신(The Alter Ego)』이 있고, 울목문학상, 민족문학상, 소월문학상, 세계시문학상대상 등을 수상. 『말모이 100년 우리말 사전』의 경북 대표. 저서로는 『집단카운슬링(번역서)』 『사라져가는 내 고향말 찾기』 『Keats의 Hyperion연구』가 있다.

♣ 『하늘을 왜 자주 바라보는가』에 대하여

올해 시집을 묶은 이유는 감성과 열정이 더 메마르기 전에 서둘러야겠다는 용기를 냈다고 하시며, 시집 상재는 늘 그렇듯 시인의 영혼을 모두 쏟는 작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주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컴퓨터 워드작업이 안 되는 선생님을 도와 며느님이 수고를 했고, 감사하게도 출판사 문화발전소 민윤기 사장님의 협조와 정성, 특히 선생님을 대신해 예의를 갖춘 인사말 작성, 우편발송까지 해주어, 걱정했던 시집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나는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이라

하셨다.

이번 시집의 주제는, 시집 제목이 나타내는 대로 요즘의 고민과 근황이 다 포함된 “하늘을 왜 자주 바라보는가”가 바로 주제이며 시집의 제목이 되었다고 하셨다.

유한근 평론가는 시집해설에서, “김정원의 시는 내밀한 자아성찰과 거시적 안목으로 사회와 역사를 통찰하고 확고한 국가관과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썼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시집을 내고 주위의 찬사와 큰 호응을 받았는데, 다음번에는 “하느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주제로 시를 쓰고 싶다고 하셨다.

버킷리스트를 여쭙보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맘에 맞는 친구와 함께 세계여행을 하고 싶다고, 동남아나 서유럽 쪽은 가보았지만 북유럽 쪽은 못 가서 그 쪽으로 가보고 싶다고 하셨다.

♣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최선을 다해 본인의 삶을 살며, 열정을 가지고 모교와 동문회 발전에도 힘쓰는 모습이 기쁘고 대견하다고, 우리 후배들은 다른 학교 후배들보다 마음이 더 따뜻하다고 하시며,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뒤도 돌아보면서 공생의 사회를 만드는 데에 밑거름이 되는 훌륭한 어머니, 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식사 후 차 한 잔하고, 선생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헤어졌다.

다음에 선생님의 근황을 잘 나타내는 시 한편 옮겨본다.

글 방희자 14기

오늘에

아침 햇살에 오늘을 본다
이제와 내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조막손의 손자가 피아노 칠 때
박수만 쳐도 좋아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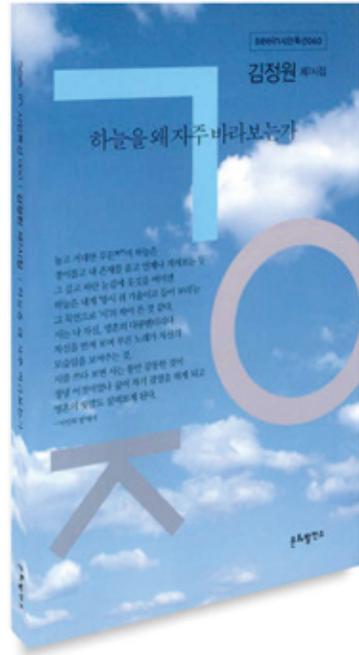
학교서 돌아오면 따끈한 우유에
과일 접시 건네줄 땐 기뻐했지

며느리 저녁 밥 지을 때
마른 빨래 접어놓으면 웃는 얼굴이었지

출근 전 아들 구두 닦아 놓으면
미안함 머금고 눈웃음 보였지

구두가 반짝 윤기 돌면
순풍에 돛배처럼 기쁨 실어오라고 기도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보다 더 줄어들지 않기를 비는 아침.



오랜만이예요, 동문 여러분



김진수 10기 (11대, 12대 총동문회장 역임)

아침, 인터뷰를 위해 전철역에 일찍들 모였다.
 찾아간 곳, 김진수10 동문 댁, 제11 ~ 12대 총동
 문회장을 역임한 분,

인디안핑크 울 투피스에 환한 웃음, 귀걸이와 목
 걸이가 돋보이는 선배님의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아
 름답다.

선배님의 안내로 들어선 집안, 올 화이트 실내가
 막힘없이 시선을 끈다.

“파티 매일하고 싶은데요?”

“너무 환해서 이 방 저 방 다 궁금하네요.”

우아한 실내 인테리어에 한마디씩 한다.

집 안 곳곳에는 여행 중 수집한 소품들과 고급진
 찻잔들이 장식장을 빛낸다.

“커피를 넣다 쏟았네.” 하시며 ‘매빙 아일랜드’
 커피잔에 향 좋은 커피를 내 놓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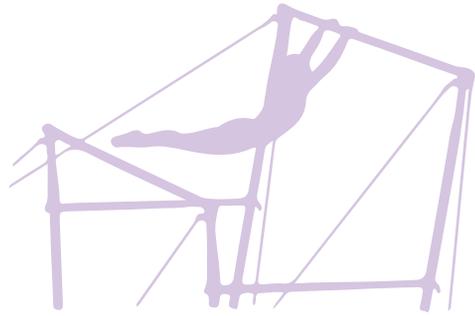
여기저기서 인사 소개들로 화기애애하다.

**-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찾아뵙
 기로 했어요. 옛날 실화도 듣고 싶구요.**

“원래 말 잘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후배들
 이 찾아와줘서 고마워.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이
 네. 그리고 제대로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겸손해
 하신다.

- 처음 체조를 하시게 된 동기는?

6·25 사변이 나기 전에는 발레를 했어. 그리고
 피난 갔다 환도 후, 아버지께서 기계체조로 유명한
 수도여중 입학을 권유해서 시작했어. 학기 초에는
 10여명이 지원했으나 워낙 힘든 훈련으로 학년 말
 에는 2명 정도 남아 있곤 했지.“



- 기계체조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환도 후라지만 상아당에 미군이 주둔해 있어 연습 장소를 이 학교 저 학교로 전전했어. 항상 ‘김진수’는 체조 연습벌레였지. 대회만 나갔다 하면 일등상을 휩쓸었어, 당시에는 주 종목이 없이 마루운동, 이단 평행봉, 평균대, 뽀름 등 네 종목을 다 출전했거든. 당시 6기 김휘자 선배님과 석봉근 선생님이 체조 기술을 지도해 주셔서 내 개인기가 많이 우수했어. 이 나이가 되었어도 그 분들의 고마움이 선하게 떠올라.

대회에서 상을 타오는 날이면 방순경 교장선생님께서 조회 시간에 단상 위에서 상장 수여를 하며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어린 나이에 참 좋았어.

지금 둘째 딸이 리듬체조로 엄마의 뒤를 이었지. 그 딸이 가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해.“

거실 곳곳에 둘째딸의 리듬체조 사진이 체조 가문을 말해 주고 있는 듯하다.

- 수도여고는 선배님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지도자가 되겠다는 큰 꿈을 항상 가졌지. 수도여고는 내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곳이야. 전쟁 후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가지고

버티낸 곳, 버티게 해준 곳이지.”

- 고등학교 시절 잊지 못할, 꼭 하고 싶은 여담은?

학교에서 방순경 교장선생님 계신 교장실을 지나갈 때면

“진수야” 부르시며 교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차를 내주시곤 했던 기억, 참 황송하고 어려웠지만 무척 좋았어.

아! 또 있어. 항상 어디를 가든 운동복을 가지고 다녔는데 한번은 아버지와 지리산 화염사 갈 때 정신무장용으로 운동복을 가지고 갔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했으니까.“

“더 말해도 괜찮겠지?” 하시며 또 일화를 말씀하십니다.

“일요일이었는데 운동 연습하러 학교에 가는 도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용산역에서 전차가 끊어졌어. 걸어서 학교에 가 연습을 했지. 억척이었어.”

“나보다 아버지가 더 억척이야. 집에다 평균대 저철봉을 설치해 주시며 집에서 운동하기를 원하셨지.”

잠깐 그 얼굴에 추억의 그림자가 스쳐간다.

인생의 모든 것이 기계체조였음을 시린 눈가가 말해주는 듯하다.

무서운 끈기다. 조그마한 분의 집념이 새삼 존경스럽다.

- 경희대학교로 진학하게 된 이유라도?

“경희대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 당시 스포츠하면 경희대여서 그 곳에서 선수 생활을 했지. 남녀 공학에 여자인 내가 기계체조로 홍일점이라 주위에서 많은 대우를 해줘서 선수 생활이 즐거웠어.

아! 또 기억나는 데 고등학교 2학년 홍콩 원정 갔을 때 남자 15명(고등, 대학, 일반)과 여자로는 내가 홍일점이라 아주 좋았지. 자신감이 넘친다.

졸업 후 교사 생활을 몇 년간 한 후 경희대 교수로 채용되어 퇴직할 때까지 어려움 없이 지냈지.

내 생애 가장 화려하고 보람 있고 고마운 곳, 내 삶을, 꿈을 이루게 한 곳이야.

수도여고가 있어서 경희대도 있었던 거지.“

매사에 감사함을 담고 계시는 선배님이셨다.

- 교수 재직시절 기억에 남는 제자는?

“여홍철(애틀랜타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을 인솔하고 애틀랜타 올림픽에 갔던 일”

‘이필영’ 교수님도 기억에 새롭다고 하신다.

- 결혼 생활과 자녀들 이야기도 들려 주셨으면

“우리 때, 이렇다 하게 내세울 만 한 결혼 생활 이야기가 없어. 교수 생활하며 아이를 키우고 바빴던 것만 생각나. 남편은 오래 전 하늘나라로 갔고, 자식은 1남 2녀로 딸 둘은 외국에서 살고 있고, 내 생활이 단조로워, 지금은. 결혼 생활 그게 그거니...”

라며 총동문회 회장일 보실 때로 화제를 돌리신다.

총동문회장직을 연임(제11대~12대)하며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은 일이 지금도 또렷해서 그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란다.

“일은, 무슨 일이든 혼자 못해요. 협력하고 협조해야 일들을 마감할 수 있어. 동문회 일이든 가정일이든 예외가 아냐.”

-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80이 넘어 건강한 삶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이 남아 있네. 대학 졸업 후 ‘체조 교실’을 만들어 일반 아동들을 키우고 싶었는데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그게 아쉽고, 지금도 계속되는 바람이야.“

- 80세에도 건강하고 자세가 곧으신데 비결은?

“요즘 80이 나이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 코로나로 휘트니스를 못 다니지만 집에서 자전거 타고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 각 방마다 매트리스 깔아놓고 생각나거나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습관이 있어서 지금도 운동이 생활이지.

여기 후배들도 건강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동문회보를 위해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것도 건강이 받쳐주니까 하는 거지.“ 하신다.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는지...” 하시며 다과를 준비하신다.

팔랑거리듯 몸이 가벼우시다. 열정, 건강, 아름다움이 풍긴다.

‘저는요 요즘’ 주인공 김진수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당당해 보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글 김창주 19기

21세기 노아의 방주 방주교회를 만나다



백정선 15기

제주의 가을은 오름의 갈대에서 시작된다. 사방이 햇빛으로 출렁이며 바람에 맞서는 서걱임 또한 묘한 분위기를 띄운다.

일요일 아침, 객지에서 예배당을 찾았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 762번길 113 방주교회

제주 건축 여행의 필수코스.

내 생애 버킷리스트 하나가 이루어지는 순간,

‘방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 방주교회

성경 속의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일본계 재일 교포 ‘이타미 준’의 손길과 생각을 담은 교회 건축물로 많은 건축상을 받은 아름다운 교회이다. 종교를 떠나 매일 많은 방문객들이 들른다.

제주를 소개하는 책에는 건물 외관에 십자가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교회 앞머리 지붕 밑 외벽에 철로 된 십자가가 박혀있다. 지붕은 아연과 동을 섞은 ‘징크’라는 재료로 조각을 만들어 기왓장 놓듯 한 장씩 엮었다고 하는데 수명은 100년을 간다고 한다. 햇빛을 받으면 물결처럼 반짝여 신비함을 느끼게 한다. 밖에서 보면 얇은 연פות이 건물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교회는 마치 ‘노아의 방주’를 보는 듯하다.

주일이라 예배객들이 많다.

건물 안에는 낮은 강단 뒤로 십자가가 서있다. 그 뒤 창문에서 쏟아지는 빛의 신성함을 안고 예배를 드린다.

마음이 편하다. 이 편안함을 감사하며 15기 백정선 선배님을 생각한다.



몇 년 전 '백합동문회보'에 방주교회를 세운 선배님을 소개하려 했으나 극구 사양하셨던 기억이 새롭다.

서울에 올라와 다시 전화를 드렸다

나와는 여러 인연으로 친분이 있지만 방주교회 이야기는 조심스럽다며 망설이다가 어렵게 응해 주셨다.

- 교회를 짓게 된 동기는?

부군과 함께 제주도에 자주 머물다 보니 주일날 예배드리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으면 해서 부지를 알아보고 그러면서 설립을 결심했다고 한다. 결심과 부지 선정, 설계, 착공까지 많은 시간과 기도, 재정적인 면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실은 이 땅이 형편없는 구릉지였어. 대형트럭 몇 백 대 분의 흙을 붓고 돋우고 해서 평평한 자리에 지금의 교회가 앉게 됐지. 교회 정원도 보통 힘들게 다져진 게 아니야”

그랬을 거다. 핑크물러와 갈대로 이처럼 화려한 정원을 이루기까지 또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을까 짐작이 된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마음을 나누고 안식을 찾고 싶을 때, 종교를 떠나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던 하느님의 말씀과 그 분을 위한 백정선 선배님의 기도의 끝이 방주교회를 짓게 된 힘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은 게 아니야. 하느님이 계획하고 도와주셔서 사업하던 남편이 이룩한 거지. 난 함께 동행하고 고뇌하고 기도한 것뿐이야.”라며 겸손해 한다.

- 방주교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호수의 물은 매일 농수물을 트럭으로 실어와 채워넣는 수고를 해야 해. 물도 새어 나가. 그래서 방수작업도 수시로 해야 해. 며칠 전에도 했어. 참 손이 많이 가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드는 교회야. 제주 기후 특성상 바람이 센 날에는 바람이 물을 다 날려 버려서 바닥이 드러나기 일쑤야.”

바람이 물을 다 날려 버린다고?

소름 돋는 말이다. 기가 차다.

이 희귀한 스토리를 순례객들은 알까?

“이런 수고 뒤에 입소문이 돌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개되었어, 예상치 못한 일어서 내가 좀 놀랐지.”

장난스럽게 웃으신다.

“또 있어. 호수의 물결이 배를 밀어내 듯 배가 가는 것 같이 느껴져 예배 중에 떨미를 하는 분도 있어. 나도 자주 떨미가 나.”

이 신비로움을 뭐라 말해야 할까?

아! 함께 예배를 드린 친구의 말이 생각났다.

“나 떨미나서 혼났어.”

나는? 눈감고 있어 못 느꼈나 보다.

“참, 카페도 좋았어요.” 했더니

교회 설립 후 순례객들이 화장실이 없어 불편해 하는 걸 보고 화장실 이용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카페를 열었다. 수입은 '방주사회복지재단'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선배님의 그런 배려와 수고에 대하여 생각도 해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카페 안에 있었던 '6개월 후 어느 날 보내드립니다'란 느린 우체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아, 그 우체통 재밌지?”

선배님의 반짝이는 우체통 아이디어까지 더하니, 참 좋다. 그 카페가.

- 방주교회는 선배님 인생에 어떤 의미일까요?

“의미? 그건 하느님의 영역이야. 잘 이끌고 가시게 돌봐드리는 것 뿐, 많은 순례객들이 기도와 안식을 얻고 가는 것, 그거지 뭐!”

사심 없이 툭 던지는 말에는 우리 뒤편은 다 이루어졌다는 초연함이 보인다.

- 방주교회 주보 첫머리가 떠오른다.

- 앞부분 생략 -

‘순례객들의 영혼의 안내자가 되기 위해 2009년 3월 18일 ‘재단법인 방주’에 의해서 설립된 초 교

파적 예배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제주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설립목적이라 생각했다.

일 년에 한두 번 개최하던 음악회를 코로나 때문에 열지 못해 아쉽다고 하는 선배님께 꼭 코로나를 이겨내고 음악회 열 때 다시 올 걸 약속하며 파이팅한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생애 버킷리스트 하나 첨가해야겠어요.

‘방주교회에서 음악회 보는 것’

음악회 개최할 때 꼭 연락하겠다는 선배님의 목소리가 코로나 종식을 기도하듯 마음을 울린다.

글 김창주 19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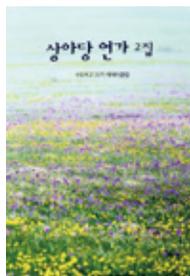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만남도 활동도 거의 정지되었던 2020, 2021년도 두 해 동안 우리 동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슬픈 소식도 있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동문도 계셨기에 소개합니다.

◆ 애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동문

- 1949년 9월 총동문회가 결성된 해에 초대회장을 맡아 1959년까지 수고해주신 1기 김영자 고문께서 2021년 5월 15일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회 정금자(세실리아) 선배께서 2020년 4월 9일 아침에 지병으로 선종하셨습니다. 동문회에서는 회장과 임원들이 조문하여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문회의 많은 일에 참여하셨으며 임원회의에 참석하시면 자주 기부금을 주셔서 동문회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등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삼가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 우리가 코로나19로 꼼짝없이 모임도 못하고 한 동안 소식이 뜸했던 시간에 백합문인회 회원이신 3기 조정숙 선배께서 2021년 7월에 별세하셨습니다. 모임 있을 때면 늘, 떡이나 과일을 챙겨오시던 마음 따뜻하셨던 선배님, 그곳에서 영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출간, 수상 및 개인전

- 3기 김정원
제7시집 <하늘을 왜 자주 바라보는가>를 상재.
- 14기 김경자
2020년 11월 첫 시집 ‘빛나는 아침에’ 발간.
- 18기 박숙희
2021년 여름 세 번째 시집, ‘심연에 닳을 내리고’ 발간.
- 22기 에세이클럽
2021년 8월
《상아당 연가 2집》 발간.
22기 동문들은 ‘에세이클럽’ 회원 10명, 그리고 일반 회원 22명의 작품으로 졸업



- 50주년과 칠순을 기념하는 뜻깊은 문집 을 발간.
- 22기 김옥선 동문,
수필집 『평생에 잘한 일』을 출간.
환갑 때 첫 수필집 『사는 재미 편한 재미』에 이어 칠순 기념으로 두 번째 수필집입니다.
- 25기 손순옥
2020년 10월. 경상도 방언집 《경상도말모이 니 캉내캉》을 펴냄.

◆ 수상

- 12기 정혜선
2020년 11월 6일 재단법인 신영균예술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제10회 ‘아름다운 예술인 상’에서 ‘굿피플 예술인 상’ 부문을 수상.
- 14기 윤정 이숙자
2021년 5월 29일 시조시 <마음이 녹는 온도>로 ‘세계전통시인협회’ 작품상 본상을 수상.

◆ 전시

- 18기 강인봉
2020년 8월26일~9. 1 Gallery H 4전시실에서 서예전을 열었으며 그 중 작품 한 편을 모교에 기증했습니다.(사진 기증작품)
동문회에서는 축하 화환을 보내고 회장과 임원이 전시회를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 21기 김동영 작가 (前 목원대 교수) 초대전 Embracing - 품다
2021.5.15 - 29
LYNN Fine Art Gallery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56
동문회장과 임원들이 전시회장을 찾아 축하인사를 전하고 수도여고 동문회 이름으로 화분을 증정하였습니다.





박영민 6기

마스크를 쓰고 집콕을 벗어나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갖는 일,
그런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던 팬데믹, 어쩌면 잊고 살았던 일들의
소소한 의미를 찾게 만들었다.



김순자 15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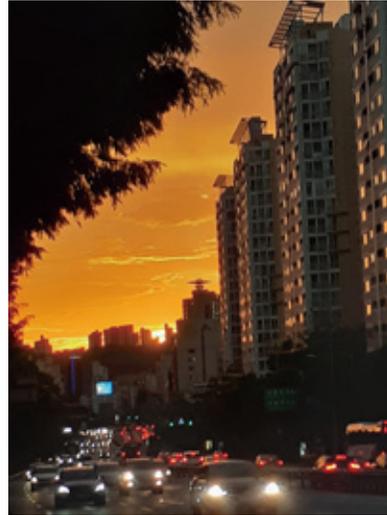
참나무 고목에 핀 버섯꽃



이자상 17기

제목 : 철길에 내려온 무지개

하늘의 무지개가 철로에 내려왔다.
 우리의 꿈은 무지개를 지향하지만
 그건 너무 허무해
 대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하늘 무지개 대신 철길을 따라
 꿈을 향한다.
 낮선 고장의 여정에
 고운 물감을 들이며....
 빨·주·노·초·파·남·보 (군산)



김창주 19기

매직아워다.
 세상을 삼킨 영혼의 빛 처절한 빛. 두렵다.
 내 하루의 비밀을 아무렇지 않게 숨겨준 너.
 또 빛졌다. (남부순환도로에서)



김창주 19기

달빛에 내린 나뭇잎 그림자가 발 밑에 설렁인다.
 잊고 산 삶이 부대끼며 기억을 재운다.
 Let's live one. (남부순환도로에서)



황금자 20기

제목 : 무엇이 우리를 가두고 있나?

벗어나자.

그리하여 훨훨 날자.

무엇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지.

사랑

명예

돈

자식

그리고 시기, 질투, 게으름...

차분히 앉아

내가 지워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자.

마침내 하나 남은

꿈마저도, 이제

지워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리하여 훨훨 날자



김귀분 21기

제목 : 흔적

예전에는 사냥하는 임금님을 태우는 말들이

그 후는 메달을 닦는 경마들이

오늘은 나들이객을 환영하는 수초와 거북이

담장이 덩굴 단풍까지 흔적에 더해지네

(서울숲에서)



문남숙 23기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밭 찾아가면...
그리움 몽글몽글 옛 친구들 생각난다.

신병준 23기

제목 : 늙은 소나무(신경림 시)

나이 선이 넘어야 / 비로소 여자를 안다고
나이 선이 넘어야 / 비로소 사랑을 안다고
나이 선이 넘어야 / 비로소 세상을 안다고
늙은 소나무들은 / 이렇게 말하지만
바람소리 속에서 / 이렇게 말하지만





송미령 24기
가을 노래



마희경 27기
제목: 風磬(풍경)

거친풍랑과 먹구름을 물리기 위해
어묵이여,
깨어있으라~



김춘임 27기
일몰에 취하다.
(남계서원에서)

이옥순 30기

제주도 화순 곳자알 지질 트레일
산방산 아래로 펼쳐지는 금모래
해변과 검은 현무암의 만남이 제주의
신비함을 더해준다



코로나 속에서의 일상

김영훈(뉴욕지부) 27기



오늘 금문교를 구경하고오던 차안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지가 사우스 코리아다. 2005년에 있었던 30주년 행사때의 그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에 대해 원고청탁을 받았다. 그냥 예스라고 말해야 될것 같아 알았어라고 곧장 대답했다. 끊고 생각하니 '아직 극복못했는데' 싶은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40여년 이민자로 생활하면서 이것은 차별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한적은 있지만 이번 펜데믹처럼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이들 눈에는 모든

동양인은 차이니스로 보인다. 내가 히스페닉사람을 정확히 어느나라 사람인지 구별 못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으니 너희가 책임이란다. 내가 아무리 난 중국인이 아니라해도 안 통한다. 코비드도 두려운데 사람들의 편견까지 더해지니 정말 두려웠다. 뉴스에선 아무런 이유없이 길거리에서 폭행당한 동양인들을 보여준다.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니 가지지 못한 자들이 신경질적으로 더욱 약해 보이는 동양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못난 것들이라 치부하기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본다. 예방접종 예약을 컴퓨터로 해야 된다 해서 남편과함께 들어가보니 모든 사이트가 접속이 폭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몇 시간 시도하다 포기하려 할 즈음,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내가 할게." 이 무슨 구원의 음성일까.

하루 원종일 밤새워 컴퓨터에 매달려 드디어 예약을 해주니 생명줄을 잡은것 만큼 든든했다. 뉴욕에서 코비드로 사망하는 숫자가 한국에서의 확진자 총 숫자보다도 훨씬 많았으니 말해 무엇하나. 실체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니.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접종은 쉬워졌고 사람들은 무더졌다. 독감같이 더불어 살게될것 같은 예감.

그 와중에도 딸은 결혼을 결정했고 사돈택이 있는 캐나다는 국경을 봉쇄해서 상견례를 줌으로 해

야했다. 우리동네 허드슨 강가에서 초간단으로 혼인식하고 혼인신고 일년만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 뉴욕에서 6시간 비행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드디어 손녀와 상봉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던 지난 6시간쯤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았다. 며칠후 뉴욕으로 돌아가면 코비드 전에 했던 동문회 선배님들과 한달에 한번 모여하는 합창연습도 다시 시작해야겠다.

백신 1, 2차 접종한 동문님들과 봄소풍을 갔을때 너무 좋아하셔서 가을에도 모이자 했고 이곳에 오기 전 다시 모였을 때 연말에도 또 모이냐고 물어보셨다. 해마다 하던 연말파티가 몇년째 없으니 섭섭하신가보다. 파티는 못해도 간단한 식사대접이라도 해야 할것같다.

씩씩해서 좋다는데 어쨌든 이 끝모를 막막한 시대를 건너려면 의연해야 하지 않을까, 마음을 단단히 조이고 일상을 전처럼 당당하게 살아내자.

금문교



코로나, 잘 이기고 있어요

탁명숙(일본) 13기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인류에게 위협으로 닥쳐 온 변이 코로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평온히 살아오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자유를 빼앗겼다. 그뿐인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회복은 되었다 하나 후유증으로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남기고 있는지....

뉴스는 온통 코로나 코로나로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 암울한 나날들이다.

여기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 2월 코로나의 문제가 점점 확장되는중 떨어져 있는 손자가 제일 걱정됐는데 다행히 유학 중이던 독일에서 귀국하여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다.

3월엔 내가 하던 사업 업종 전반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종업원들은 물론이고 가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던 중 한달 여 후에 해제되었고 다행히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서 내 생활에 지장은 없

게 되었다.

이곳 교포의 단체인 민단, 그리고 부인회의 모임이 중단되고, 대회나 총회도 모임없이 서류로 결정, 내가 속해있는 요코하마지부 부인회는 역원들의 수고로 매달 모임은 갖고 있어 내가 재배한 야채들을 잡수시라 건네줄 수 있다. 전에는 자차를 이용하며 회원들을 동승시키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되도록 전철도 안타고 내차에 다른사람도 안태운다.

걷기협회의 회원이라 단체로 걷기모임을 갖는데 많은 곳을 찾아 10킬로에서 30킬로 정도의 거리를 걷다 보면 사계절을 눈으로 피부로 즐기며 체험하던 시간이었는데 단체모임이 중단되니 나혼자서 걷는다는 건 실제로 행하기 어려워 그만 걷는 날이 없어졌다.

피트니스&스파에서 요가며 나름대로 운동하고 땀흘린 뒤 천연온천탕이라 목욕하고 돌아오곤 했

는데 전국 어디선가 확진자가 나왔다하여 휴업으로 들어갔을 때 그만 겁이 나서 그기회에 탈퇴했는데 한달도 안되어 피트니스는 정상영업로 돌아왔다 한다.

12월부터 정형외과에 다니며 리하비리가 시작되었다. 몇달이 지나면서 이래선 안되지, 안그래도 나이는 들어가는데 운동도 안하고 있으니 염려가 되어 3월에 다시 피트니스에 입회했다. 그런데 그간 규정이 달라져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제한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렛슨을 받으려면 넷트로 예약해 정해진 자리에서만 연습하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바라는 렛슨시간을 정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렇게 지나고보니 후회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다. 막상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꺼려서 그만두고 발농사나 계속하다보니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 워낙 허리는 안좋아 수술까지 생각할 정도였지만 의사의 권고로 수영을 시작했다. 그간 애써 채웠던 근육까지도 그만 허무러지는 것 같아 속이 상했다.

끊임없이 4계절 계속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농사일이다. 12킬로 정도의 거리를 운전해서 자동차로 다니고있다. 임대하고 있는 100여 평의 토지에 야채란 야채는 종류마다 거의 재배하고 있어서 30종류가 넘는다. 농사의 경력은 30년이 넘을까? 밭에 직접 씨뿌려 재배하는 것이 있는가하면 씨로 모종을 길러 밭에 정식하는 완전 프로급의 농사꾼이다. 땀 흘린뒤 다시 스파에 들려 온천탕에서 몸 풀고 귀가 후 저녁식사는 노동 후의 꿀맛이다.

휴닥터라 할 정도의 단골병원이 있으나 코로나 백신은 우리市에서 지정된 병원에서만 예약이 되기에 나이 순서대로 지정된 날자에 두번 맞았는데 병원원장이 맘에들고 여러 검사도 하는 병원이라 백

신이후 위장검사까지 하게되었고 리하비리 맛사지도 받게되어 코로나백신 덕택에 또하나의 단골병원이 생긴 셈이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처럼 나는 농사꾼이라 코로나로 인하여 맘놓고 갈 곳은 밭 뿐이었다. 나를 기다려주는 것은 내가 기르는 작물들이다. 점심은 가는 도중 편리점에서 사갖고 가는 날도 있지만 가까이 식당들이 많다. 그 중 넓고 메뉴가 다양한 식당을 단골 삼아 그날의 식성에 맞는 메뉴를 시키는데 손님의 발길이 거의 없는 3시 경에 들어가 안심하고 먹는다.

코로나 시대라고는 하지만 야채를 기르며 계속하고 있는 교제는 물물교환(?)이다. 수확한 작물의 양이 많아 자연 여러 사람에게 주게 되는데 특히 일본사람은 받으면 곧 답을하는 습관이 있어 바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만 되돌아오는 품목이 다양해서 그 답례가 아주 재미 있다. 덕분에 손수건 만드는 법까지 배웠다.

이런 인간관계는 코로나로 인한 모임 참석을 자제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욱 친밀해 진 듯하다.

유학에서 돌아온 손자는 대학수업도 온라인으로, 취업도 온라인으로 도전하여 내년 졸업과 동시에 입사도 결정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손자가 매일 전철로 등교하기에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으며, 3세대 대식구를 거느리는 며느리는 전동자전거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마스크를 하고 되도록 단 시간에 쇼핑을 하여 일용품이며 식품을 구입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지만 나 한사람이라도 <나부터>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 평화스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화이팅!!

- 시 -

나무가 죽으면

유소영 13기

지난 가을 뒷동산 나무 밭에서
옮겨온 단풍 한 그루.

어쩐 일인지,
새봄이 되어도 새잎이 돋지 않아
묵은 잎만 바삭하니 달고 있다.

나는 몰랐는데, 누가 일러 주었다.
나무가 겨울에 잎을 달고 있으면 죽은 거라고.

너에겐 산동네 단풍 밭이 그렇게 좋았구나.
이쪽저쪽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스치는 바람, 그게 칼바람이라도 정겨웠는데,
산을 넘어 지나가는 구름도 좋은 친구였겠다.

요양원 침대에 누운 노인들 같네.
살던 집이 그립고, 형제자매가 그립고,
둘러 앉아 밥이라도 한 술 먹는 소망마저 사라진.

이들이 놓고 가기 안타까운 일상사처럼
너, 나무 한 그루 마지막 안간힘으로
꼭 쥐고 놓지 못한 묵은 잎들.

봄바람에 바스락 거린다.

불갑사 꽃무릇

이숙자 14기

불갑사 찾는 길
꽃무릇 불같이 일더이다
이 들판 저 들판
붉은 융단 깔았더이다
꽃무릇 송이마다 목이 메어
가녀린 꽃대궁 바람에 울더이다
잎새 없이 온몸으로
기도하더이다

한 가지만 주소서
당신의 마음을
붉은 심장 광광 뛰는
그 마음 내게 주소서
백년도 기다리라 하심
내 심장 피를 토하리이다.



점심 같이 하실래요

방희자 14기

마음에 점 한번 함께 찍으실래요
당신과 내 마음을 묶어 하루의 중심에 서보는
겁니다
반짝 빛나는 순간이 되겠지요.

식사 한번 하자며 손 흔들고 헤어진 뒤
감감 무소식인 것보다는
지금 당장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꽃 피고 술 익으면 만나자 해놓고선 아득히
약속을 깨뜨린 사람이 많지요
철석같은 믿음을 저버리고 훌쩍 세상 떠난
이도 있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당신의 허리띠를 꼭 붙들고
싶습니다
핑곶김에 세상의 허리도 한번 잡아보고요
그럼 의기투합이 이루어진 걸로 하지요.

튤립꽃

김경자 14기

첨성대가 젖고 있다 봄비에
늘 그 자리에 선 채로
세상을 받치고 있다

누구라 곁을 지키는 이
투구에 갑옷 대신
빨간 꽃잎으로 피워 올린다 향기를

오래 전
살았던 왕녀의 흔적이
왕관 꽃으로 피었나

봄비는 온종일 여심을 적시고
웃을 입듯 걸친 나이가
달아오른 붉은 마음

쏟아붓던 질푸른 열정에
사랑의 고백도 수줍었던 사람
아! 탄성을 찍는다.

대추나무

정순영 15기

우리 집 겨울은
사시나무가 되어 소름 돋친
대추나무에서 부터 비롯한다

학질을 앓듯
빈혈기의 그림자가 그렇고
나비인 듯 날아오다
가시에 찢린 눈보라가 그렇고
구멍 뚫린 가지로 우는
바람소리가 그렇고

버팀목을 그림계 하는 구나
바람 불지 않는데도
흔들리고 있는 그리움

대추나무는 온 몸에 가시를 세워
날아 온 눈발을 하나하나
가지 위에 꽃고 있다

그네

박후자 16기

눈은 멀리 보고
발은 힘차게 내밀어라
어릴 적
그네타기 무서워 움츠리는 내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
오늘
느려지는 생의 그네 줄을 잡고
아직도 앞만 보는 눈과
떨리는 다리로 발을 구르네요
어머니
어쩌면 좋을까요
한 번도 달아보지 못한
저 푸른 하늘을.



- 수필 -

희망의 씨뿌기를 낚는다

장희만 17기

7년 전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중국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섰을 때 오랜만에 쿵쿵 가슴 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다시 무언가를 배운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선해서 잠깐 십년은 젊어진 듯 착각하기도 했다. 그렇게 기대에 가득 차 '가곡합창단'에 입문했다.

처음 만난 합창단원 모두는 잠깐의 인연에도 성의와 진심을 다하는 순수한 분들로 다가왔다. 합창이라는 아름다운 목적으로 하나 되어 그런지 나도 그런 분위기에 격의 없이 동화되어 스스럼없이 그 분들을 대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가치와 그분들의 그것은 달랐지만 나는 기꺼이 그 사고방식도 존중하게 되었다. 서로의 따뜻한 응원도 있었지만 약간의 긴장도 없지 않았다. 먼저 시작한 선배들의 마음 씀과 행동, 그리고 푸근한 표정에서 전해지는 진솔함도 배우고 싶었다.

일말의 불안이 없지 않았지만 합창반에서 접했던 새로운 인연들과의 즐거움은 다시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도전정신을 갖게 하였다. 2년 뒤에는 장구반에도 참여했다.

그 모임은 차원이 좀 달랐지만 경계 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또 다른 즐거움이 찾아왔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는지 상대를 미소 짓게 할 줄도 알게 되었다.

찰떡같이 쏘든한 유머감각과 생기 넘치는 대화

로 자연스럽게 농담도 주고받게 되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인간의 매력이란 결코 반듯한 모습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파격적이고 약간은 허술한 면이 있어도 진정성이 있으면 장점으로 보였다.

그렇게 모임에서 관계를 가지며 나오는 다른 사람을 접하는 가운데 나의 삶이 기대 이상, 상상 이상의 활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나이 드는 일에도 순응하며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알게 되자 무엇이든 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자신의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같은 세대들과 한데 어울리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도 했다.

세상 모든 일은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어울리며 우리는 다양한 예능도 곁들여 취미생활의 열정과 향기를 담아 드디어 공연도 하게 되었다. '2018년 별이 빛나는 밤에' 출연했다.

아이들만 재롱이잔치를 하는 건 아닌 듯, 황혼에 물든 우리도 어린애보다 더 순수하고 즐겁게 신명난 공연으로 자라나는 우리 손자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남겨주어 큰 보람을 맛보았다. 가족들에게도 자부심을 심어주어, 모셔야 할 부담스러운 어른이 아니라 멋진 노년을 보내며 스스로 생을 가꾸는 모습으로 다시 각인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향한 과정이 아름답다고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준비할 때의 그 떠들썩한 분위기와 설렘, 들뜬 마음들은 공연 그 자체보다 더 큰 행복감을 맛보게 했으니까.

그런 멋진 기회를 만들어준 복지관의 존재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씨뿌기'를 마구 날려 보고 싶다.

남편은 지금 여행 중

권경숙 21기

한씨 아저씨는 올해도 뜨거운 6월 지붕 위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해마다 기온이 상승해 복층인 아들 방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지붕 전체를 방수와 단열이 잘되는 강판으로 교체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더 있다. 이 집을 오래 기억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우리 동네는 청담동 웨딩 거리로 선정되어 트렌드를 이끄는 오프쿠튀르 거리로 변하고 있다. 웨딩 드레스 샵은 물론이고 헤어 메이크업 스튜디오 상견례장소, 인생에 중요한 순간인 결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샵들이 즐비하다. 루이비통 건물은 건축계의 노벨상을 받은 캐나다 출신 프랭크 게리의 작품이기도 하다. 멀리 프랑스까지 가지 않아도 규모는 작으나 청담동에서 볼 수 있다.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설계자라고 말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주변의 예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 받은 느낌이다.

어느 날 성당 구역장이 집에 왔다. 우리 집 건너 쪽에 네 채의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형님, 형님은 집 부수고 짓지 마세요. 형님네 집은 설계가 잘되어 지금 지어도 이렇게 못 지을 것 같아요”하면서 흥분한다. 나는 우리 집을 이태리, 프랑스, 독일처럼 오래된 주택으로 남기고 싶었다. 청담동에서 제일 오래된 건축물로 사람들이 찾아와 구경 할 수 있는 집, 가게를 해도 청담동에서 오래된 집을 구경 할 수 있는 재미도 곁들이며, 나의 흔적을 기억해 주는 자식들에게도 돈 보다는 기

역을 오래 간직하게 하고 싶다.

나는 집을 수리 할 때 한씨 아저씨만 찾는다. 25년 전 이 집을 지을 때 청춘이었던 아저씨는 이제 희끗희끗 흰 머리카락이 보이는 육순을 바라 보는 나이가 되었다. 25년을 같은 집에 살다 보니 하자가 곳곳에서 생긴다. 그 동안 구석구석 아저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아저씨는 항상 자재 값에 인건비를 더 한 영수증을 제출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 비교해 보면 비싸지 않고 무리한 가격을 청구하는 적이 거의 없으므로 깎지 않고 지불한다. 내가 집수리 문제로 자주 전화를 하면 자기가 아줌마네 집사냐고 빈정대기도 한다. 지붕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아들이 작업 하고 있는 아저씨를 보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아니냐며 그 많은 일들을 언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느냐고 놀란다.

오늘은 아침부터 내가 분주하다. 그 동안 나는 수고하는 한씨 아저씨한테 한 번도 따뜻한 식사를 대접 한 적이 없었다. 식당이 그리 많지 않은 시절엔 우리 할머니는 집안일들을 해주는 인부들에게 식사를 직접 대접하며 일을 시켰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요즘처럼 식당도 많고 바쁜 세상에 그런 풍습은 잘 찾아보기 어려워 진 것 같다.

“아저씨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해요. 11시 30분쯤 내려주세요.”

공사기간 간식으로 오전에 빵과 커피를 대접했으나 오늘은 대신 빠른 점심을 준비하기로 했다. 어제 옥상에서 키운 부추와 고추, 새싹보리를 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부추와 고추, 새싹보리를 넣은 부추전과 삼겹살을 삶아 케일과 상추를 곁들이고 전복을 넣은 미역국과 함께 대접했다. 마침 작은 딸이 우리 집에 전복을 보냈다. 작은 딸 회사에서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직원들에게 보낸 선물을 나에게 준 것이다. 그 전복은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역국으로 들어갔다.

한씨 아저씨와 인부들은 맛이 좋다며 미역국에 전복이 들어 간 것은 처음 먹어 본다며 정신없이 먹고 있다.

“이 야채들은 전부 옥상에서 비료 없이 키운 야채이니 많이들 드세요. 오전이지만 막걸리 한 잔 하시겠어요?”

“좋지요!”

한씨 아저씨의 대답은 시원했다.

냉장시켜두었던 막걸리를 꺼내어 대접했다. 나도 한 모금 생각이 나서 병을 들었지만 벌써 눈 깜박 할 사이 빈 병이 되어 있었다.

갑자기 한씨 아저씨가 물었다.

“사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어디 가셨나요?”

그 말에 나는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순간 머뭇거렸다. “아! 네... 그건에... 또 여행 가셨어요.”

남편은 평소 한씨 아저씨를 못마땅해 했다. 쓸데없이 집에 돈 들여 수리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 집은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이라 이사 가는 세대가 있으면 다음 사람이 오기 전 하자보수를 해야 하므로 일손이 항상 필요하다. 그런 사정을 남편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경비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남편은 한씨 아저씨를 보기만 하면 인상 쓰고 불쾌한 심정을 나타냈다. 아저씨도 남편의 성격을 웬 만큼 알고 있는지 참고 이해해 주셨다. 나는 크고 작은 공사를 구분해서 처리 했다. 공사가 단순할 때는 남편이 동창회나 등산 일정이 있을 때, 시간을 요하는 공사일 때는 남편의 장기간 여행을 권하여 피해갔다. 그런데 이젠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났다.

혼자되니 누구에게 남편이 떠났다는 것을 알리기 두렵다. 이 나이에 과부가 되어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지 남의 시선에 울적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인생의 여정은 자국으로 남고 시끄러운 소리도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큰 고목나무였던 사람이 없으니 이 큰 무대에서 나 혼자만의 인생을 새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슬그머니 외로움으로 다가 오는 느낌이다. 이럴 때 더욱 남편이 그립다. 남편 집안은 장수 집안인데 내가 남편 건강에 소홀하거나 앓았는지 돌아보게 되고, 좀 더 잘해 줄 걸 싶은 후회가 크다.

남편이 많이 보고 싶다.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남편은 여행 중이다. 나는 남편과 가끔 대화를 나눈다. 남편은 지갑에 용돈이 두둑한 한 것을 좋아했다. 난 남편의 지갑에 현금을 항상 채워 내 책상 위에 둔다. 그리고 갑자기 현금이 부족할 때 남편에게 말한다.

‘여보! 돈 좀 빌릴게. 내일 오전에 갚으면 되지? 이자까지 쳐서……’

“여보, 지금 당신은 여행 중이니, 잘 다녀와……”



라떼는 말이야

이지수 22기

오늘 집으로 새 휴대폰이 배달되었다. 수신인은 남편이고 발신인은 아들이다. 남편은 어떤 물건이든지 마르고 닳도록 쓰면서 쉽게 바꾸지 않는 성격이라,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웬일인가 했다. 하긴

6년째 쓰고 있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보름 전쯤 서비스 센터를 다녀온 적은 있었다.

남편 추측으론 며칠 전 아들네와 저녁 먹을 때 현 휴대폰 상태를 얘기했더니 새것을 보내 준 모양이라고 한다. 남편은 어떻게든지 손을 봐서 계속 쓸 생각으로 물었을 텐데, 아들이 보기에는 바꿀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여겼나 보다. 싫지 않은 표정으로 꼼꼼히 싸여있는 새 상자를 풀면서도 입으로는 아직 한참을 더 써도 되는데 한다. 내가 휴대폰을 신형으로 바꾸기를 권할 때마다 남편이 늘 하던 익숙한 말이다.

곧바로 남편은 동네 대리점에 가서 등록을 하고 현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갖가지 정보들을 옮기고 왔다. 우리 부부는 누가 아닐로그 세대라 아니 할까 봐 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 기계치에 가깝다. 새 물건이 생기면 좋기도 하지만 익숙해지기까지는 엄청 스트레스가 쌓인다. 새 휴대폰에 익숙해지려면 몇 날이고 조물락거리며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나 보고 전화해 보란다.

내게 저장된 남편 단축번호를 누르자 맑은 새소리가 들리며 우아한 클래식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 뜬금없다 싶어 바라보았다. 여태까지 남편은 벨소리로 '마마스 앤 파파스'의 California Dreamin이나 '더 애니멀스'의 House Of The Rising Sun 같은 팝송을 즐겨왔기 때문이다. 벨소리가 추억의 팝송에서 우아한 클래식으로 바뀐 사연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옛날 사람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정보를 옮겨 준 젊은 직원에게 여태까지 쓰던 old pop을 벨소리로 부탁했더니, 뭐 그런 노래도 있나 하는 아주 생경한 표정을 짓더라. 왕년에 그 곡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시절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너희가 어찌 알랴? 라는 생각도 들

었지만, 남편은 그냥 새 기기에 저장된 음악 중에서 고르기로 했다. 벨소리로 내장된 음악들을 여직원이 차례로 들려주는데 귀에 익숙한 곡이 나오기에 "그 차이코프스키의 멜로디로 합시다" 했단다. 어린 시절 바이올린을 제법 오래 배웠던 학습의 효과를 본 것이다. 그 순간 여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화려한 젊은 날이 있었고, 설렘과 열정이 만든 추억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현재 젊은이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들은 아직 가지 않은 길이니까. 올드 팝을 전혀 모르던 여직원은 연주곡 첫 마디만 듣고 차이코프스키라고 말한 남편에게 갑자기 친절해졌다. 이것저것 새 기기의 사용법을 배우고 나오면서 고맙다고 사례를 하자,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까지 별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고 한다.

처음엔 늙수그레한 어른이 그 곳에서 구입하지도 않은 기기를 들고 와 도움을 청하자 귀찮은 마음에 대충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나 보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들리시라는 친절한 말까지 들으며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한 때는 말이야 좀 큰물에서 놀았거든'

큰물이든 작은 물이든 이미 우리는 꼰대세대가 되었다. 살아 온 세월만큼 경험도 많아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진다. 그러나, 왕년에 갖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쌓여진 연륜으로 보이는 것은, 말로 하는 것 보다 훨씬 윗길이다. '라떼는 말이야-'는 품위 있게 속으로만 읊어야 진정한 어른으로 대접받을 것 같다.

*'라떼는 말이야 :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나 때는 말이야'를 풍자하는 표현 (NAVER)

경부고속도로

박경임 26기

경부고속도로 50주년을 기념한다는 티브이 안내를 보다가 아득한 옛날이 생각났다.

1975년이니 경부고속도로 개통 5년째가 되는 해였다. 나는 인문계 여고를 나와, 주산, 부기를 못하니 작은 회사의 경리 자리도 찾기 힘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하릴없이 청춘의 고뇌를 곱씹으며, 나를 대학에 보내주지 못한 부모만 원망하면서 막걸리 집에서 못 먹는 술을 퍼먹기도 했다. 아버지는 공무원시험이라도 보라고 달래기도 했는데 그 시절 공무원은 별 인기 있는 직업도 아니었고 상명하복의 낡은 분위기가 싫었다. 그러다가 엄마의 권유로 고속버스 승무원 시험을 보게 되었다. 그 당시 고속버스 승무원은 높은 연봉과 소녀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이어서 기수별로 30명 정도 선발하는데 1000여 명에 달하는 소녀들이 모여들었다. 필기시험과 스피치, 워킹 등 거의 미스코리아 뽑는 것 같은 과정을 거쳐 30명이 동기생으로 만났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기대로 가슴이 콩닥거렸다. 승무원들은 휴무일에 빈자리에 무임승차가 가능해서, 여행을 좋아하는 나는 회사 노선이 있는 전국 어디든 공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선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의 호된 교육이 시작되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물 쟁반을 들고 걸어야 해서 중심 잡고 걷기, 마이크 사용과 오디오 작동법, 안내방송 외우기, 화장법, 고객 응대 훈련, 사고 시 대처 방법 등 항공 회

사 교육팀이 진행하는 교육은 스튜어디스 교육과 거의 같아서 고되고 힘들었다. 특히 인터체인지 안내방송을 외우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30명의 동기생이 교육을 시작했는데 졸업할 때는 20명이 채 안 남았다.

처음 승무를 하던 날, 선배 승무원이 안내하는 차에 같이 타서 선배가 하는 것을 보고, 잠깐씩 마이크를 넘겨받아 안내방송을 해보는데 어찌나 목소리가 떨리던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얼굴이 붉어지는데 손님들은 손뼉까지 쳐가며 햇병아리 승무원에게 용기를 주었다. 다음 기수가 뽑힐 때까지 제일 짧은 노선부터 시작해서 점차 긴 노선으로 승무 배정이 올라갔다. 처음엔 평택노선부터 시작했는데 하루에 다섯 번을 왕복하면 편도 10편이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손님에게 줄 물을 채우고 컵을 씻고 정신없이 차에 타서 출발 안내방송을 하면 여기가 평택인지 서울인지 정신없이 헤매기도 했다, 집안 형편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을 만큼 자신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시내 도로에서 신호등에 걸려있으면 손을 흔들며 좋아해 주는 모습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45인승 버스 안에서는 내가 최고인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었다. 좁은 단칸방의 집을 떠나 잘 꾸며진 숙소에서 또래의 아이들과 지내는 것은 재미있었지만 기수별 대접은 거의 군대 계급 수준이었다. 숙소에서 선배들의 가방을 건너가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여서 행여 목욕탕에서 부딪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서 눈물 흘려가며 얻어온 차관으로 만들었다는 경부고속도로. 그 428KM

가 우리 국민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어주었듯이 나에게도 경부고속도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준 고마운 길이다. 승무하는 동안엔 근사한 제복에 흰 장갑 낀 손을 흔들며 만나는 모든 것들은 오롯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이었다. 석양이 물드는 저녁 하늘을 보며 손님들에게 정해진 인터체인지 안내방송이 아니라 시적인 감성으로 내 나름의 설명을 들려주기도 했는데, 자주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는 일부러 내 승무 시간을 찾아 탑승하는 사람도 있었다. 승무원실에 개별 팬레터도 쌓이던 나름 인기인 이기도 했다. 대전 아래로 가면 그 시절 고속도로는 아주 한산해서 가끔 만나게 되는 같은 회사의 차를 보면 헤드라이트를 켜서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했으니 요즘처럼 복잡한 도로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승무원들은 무상으로 먹을 수 있었는데, 천안의 호두과자. 금강유원지의 가락국수가 기억에 남는다. 휴게소에 다녀오면 손님들이 수북이 내 자리에 쌓아놓은 간식들을 챙기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마산행 일요일 막차는 거의 절반이 해군 장병들이었다. 1박 2일의 외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군인들이 여럿이 모이다 보니 객기도 발동해서 그들은 서로 교대로 한 사람씩 나를 불러 세우며, 물 주세요. 사탕 주세요, 에어컨이 안 나오네요, 음악이 잘 안 들려요, 뭐 이런저런 주문을 하며 마산까지 여섯 시간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같은 또래의 청춘들만이 통하는 웃음으로 긴 시간 즐겁게 갈 수 있었다. 특히나 마산터미널에서 숙소까지 걷는 길은 양 옆으로 벚꽃나무 가로수가 너무 아름답고 고즈넉해서 내가 영화 속 한 장면 속에 있는 것 같아 일부러 천천히 걸어 들어가곤 했다.

그즈음의 고속버스는 거의 일본산 중고차여서 창틈이 벌어져 있는 차들이 많아 여름엔 에어컨이 시원찮고 겨울엔 실바람이 스며 고객들의 원성이 잦기도 하고, 펑크도 잘나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삼각대 앞에서 깃발을 흔들며 고속도로에서 있기도 했다. 겨울에 우리가 얼지 않도록 부동액으로 유리창을 닦는 일이 제일 싫었다. 귀퉁이가 잘 안 닦여서 그 틈으로 서서히 우리가 얼어오면 기사와 눈초리가 사나워지기도 했다. 그래도 자동차 맨 앞 자리에 앉아 너른 도로를 달리는 쾌감에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어두운 밤 고속도로에 눈이 내리면 기사는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나는 아다모의 〈눈이 내리네〉를 틀어놓고 헤드라이트 불빛에 따라 춤추는 하얀 눈밭을 바라보며 한없는 상상 속으로 날아가곤 했다. 20개월 정도의 짧은 승무 생활을 마치고 결혼해서도 다닐 수 있는 공무원시험을 보기 위해 퇴직했는데 생애 첫 직장이던 고속버스 승무원 시절은 내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공무원이 되어 받은 첫 월급이 승무원 월급의 절반도 안 되어서 실소했던 생각도 난다.

50년 동안 경부고속도로는 너무 복잡해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까만 밤 속에 고요하던 부산행 막차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낮게 음악을 틀고 잠든 승객들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내 자리에 앉으면 무사히 하루가 마무리됨에 감사하면서 어두운 청춘의 터널을 빠져나온 나를 대견해 했다. 경부고속도로가 더 넓어지고 화려해진 것처럼 내 삶도 더욱더 단단하고 화려해 지리라 기대하며 다음 주에는 고속도로를 달려봐야겠다.

어르신으로 살기

최은희 27기

재미진

환장할 환갑이 지나더니 온 몸이 뼈걱거리더니 맘마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만나면 우린 깔깔대며 떠들었다.

어른들이 왜 환갑이 중요하다 했는지 이해가 가. 너두? 나두! 맞아, 맞아.

옛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없어. 그치?

애, 그거 있잖아, 그거. 뭐? 그거, 그거.

날말은 생각이 안 나고, 손에 든 휴대폰을 계속 찾고. 그러면서도 우린 저 깊은 곳에 일말의.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도 아직은.....

엄마는 그러셨겠지. ‘고걸갖고? 더 살아 봐.’

프약함, 이건 뭐?

TV자막에 고위험군 고령자를 운운하며 건강 관리에 조심하라는 글귀가 계속 떴다.

앵? 나네. 내가 벌써?

꼬박꼬박 해가 바뀌면서 하나씩 늘어오던 내 나이가 어느덧 사회에서 인정하는 관리 대상인 고위험군 고령자가 되어있었다.

이런!

엄마는 그러셨겠지. ‘니들은 안 늙을 줄 알았지’

스멀거리는 흐뭇함

며칠 전 내 이름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기초 연금을 신청하세요. 어르신 교통 카드를 신청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도우미를 신청하

세요.

몇몇 친구들이 이미 발급받아 쓰고 있다는 그 카드를 드디어 내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야호! 드디어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 카드를 받게 되었구나!

이제부터는 자신 있게 어디든 전철로 다녀야지!

엄마는 그러셨겠지. ‘그래도 줄 수 있을 때가 좋아, 받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자존심 상하는

30여 년 이어 온 모임에서 순번으로 돌아가며 총무직을 맡는 데 이번이 내 차례라며 전 총무가 회계장부를 넘기겠다 전해왔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하나 개설하겠다고 집을 나서는 내게 남편이 말했다.

‘어, 그거 휴대폰으로 간단히 할 수 있어.’

주저앉으며 휴대폰을 들고 통장 개설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요 조그만 휴대폰은 계속해서 내게 경고 문자를 띄웠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 줄 알았어. 문자나 카톡만큼은 자신 있었지만 새로운 뭔가를 애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참아가며 씨름하기를 30여 분 겨우 개설할 수가 있었다.

이런! 난 정말 이따위 조그만 기기에 휘둘리면서 나의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게 너무 싫어. 싫다구!

새로 구입한 TV의 작은 리모콘이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작동을 안 한다며 엄마는 그러셨다.

‘이런 것들도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더라.’

그래도 꽤 괜찮은

한동안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했었는데, 잠시 방역이 풀려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었다. 보통 우리의 기본 예의는 젊은이들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은 피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날은 너무도 오랜만이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다 보니 하필 퇴근 시간에 귀가 전철을 타게 되었다.

미안함과 함께 지친 몸을 한구석에 기대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였다.

웬 청년이 일어서며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하는 게 아닌가.

응 나? 어머! ‘고맙습니다.’

앗싸! 나, 어르신!

엄마는 그러셨다. ‘나이 들어 어른으로 산다는 건 참 힘들더라.’

어르신이란 말은 열(정신, 넋)과 신을 합한 말이라고 누군가 그랬다.

어른보다 한 수 위인 어르신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싶다.

나이 먹은 것이 내 뜻은 아니었지만 크게 내세울 건 아니다.

잘 살아야겠다. 보통의 어르신으로

엄마는 코웃음 치시며 그러시겠지? ‘애, 아직 멀었어. 더 살아봐.’



위로

김영득 27기

“동키 좀 어떠냐?”

동키는 올해 여섯 살 된 우리집 개이름이다.

시골에 사는 시어머니께서 벌써 두 번째 전화를 하셨다. 최근에 동키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2주가 되었는데 걱정된다며 전화로 이것저것 물으셨다. 시어머니 뿐 아니라 시누이 조카까지 모두 동키의 안부를 묻고 걱정했다. 나는 좀 어리둥절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개를 싫어했다. 동키를 처음 사온 날 괜한 짓을 했다며 이구동성으로 나를 나무랐다. 시어머니께서는 어찌다 우리 집에 오시면 개 털이 옷에 묻어 행세를 못하겠다며 짹짹이를 들고 다니셨다. 동키가 꼬리를 흔들며 가까이 오면 ‘저리 가라’고 큰 소리로 야단치면서 긴 구둑주걱으로 방바닥을 두들기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상하여 시어머니께서 빨리 시골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동키가 퇴원했던 다음날은 시어머니 댁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모임이 있었다. 잔뜩 두려워하는 동키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개 때문에 시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가족모임에도 참석을 못하는 것이 어쩐지 도리에 어긋나는 것 같아 눈치가 좀 보였지만 나는 동키 옆에 남기로 했다. 시댁에 다녀 온 남편은 식구들이 다들 동키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동키에게 주라며 시어머니께서 싸주셨다는 돼지고기 숙회 봉지도 내밀었다.

동키 때문에 속상했던 가슴이 따뜻해지고 시댁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6년 전 어느 날 남편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했다.

“나는 말이야, 퇴근해서 초인종을 누르면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쏘살같이 뛰어나와 안졌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웃다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 했다. 남편도 민망했는지 피식 웃었다.

농담으로 들었던 남편의 말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그동안 남편을 소 닭처다보듯 무심하게 대했던 것 같아 반성도 되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에게 “왔어?”라는 말 한마디만 던지고 냉큼 부엌으로 들어가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하는 남편이 식탁에 앉고 나서도 매번 20 여 분을 더 기다리게 했다.

생각해보니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내 태도를 바꾸는 것도 몇쩍은 일이었다.

궁리 끝에 크리스마스 날 남편에게 강아지를 선물하기로 했다. 품피치라는 종의 믹스 견이었다. 이름은 돈키호테를 줄여 ‘동키’라고 지었다.

동키는 내가 기대했던 것 보다 역할을 훨씬 잘 해내었다. 남편의 퇴근 시간에는 아예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이산가족상봉이라도 한 듯이 허리높이까지 뛰어 오르며 얼굴을 비비고 한참동안 세리머니를 했다. 남편은 행복해 했다. 퇴근하는 남편의 손에는 자주 동키 간식이 들려 있었다. 동키는 거의 사료를 먹지 않고 간식만으로 6년 만에 13kg이 되어 커다란 개가 되었다.

튼튼하던 동키가 최근에 발작을 하여 1~2분 동안 온 몸이 마비되고 경련을 일으켜 입원하게 되었

다. 뇌에 염증이 생겨 부었다는 진단이었다.

병이 나아도 실명이 올 수 있고 걷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의사가 잔뜩 겁을 줬다. 아직 불안하긴 하지만 현재까지 그런 후유증 없이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은 모두 가족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되었다.

어려울 때 걱정해 주는 전화 한 통이 큰 힘이 되었다. 시댁식구들의 전화는 동키를 걱정 했다기보다 나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었다는 것을 잘 안다. 동키를 싫어했던 분들의 달라진 관심이 크게 다가와 그런지 더 감동이 컸다. 시아버님 제삿날 동키를 처음 본 시누이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요, 개 키우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꼭 하고 싶어요. 개에게 하는 정성의 십분의 일 만큼만 부모에게 하면 효자 소리 들을 거라구요.”

그랬던 분으로부터 동키가 걱정된다는 전화를 받다니 놀라웠다. 누구의 위로보다 고마웠다. 가족의 사랑은 드러나지 않다카도 이럴 때 힘을 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아닌가 싶다.



동문산악회 속초여행 후기 (2021년 11월)

계상희 18기



코로나가 지구촌 곳곳, 인간들의 일상생활, 행동 반경을 뚝뚝 묶었던 고통 속에서 인내하며 지내오다 정부의 With Corona 방역수칙 완화에 드디어 오늘 백합산악회는 조심스레 강원도 속초 여행길에 나섰다.

약속 시간에 맞춰 압구정 주차장에서 만난 선후 배동문들 그동안 서로 만나지 못한 반가움에 기쁨이 넘쳐났다.

2년이란 공백기가 있었지만 각자의 마스크 속 얼굴에는 무언가 우린 한 교정에서 배우고 자란 동문들이야 하는 진한 교감이 오가는 듯하였다.

짙은 안개 속을 시야 멀리 바라보며 버스는 힘차

게 출발, 차창 밖 가을걷이가 끝난 논밭 위 하얗고 동근 벼짚 곤포 사일리지더미를 보며 올 한해 수확물에 감사함을, 한여름 질푸른 푸르름은 온데간데 없이 누렇게 붉게 물든 활엽수로 덮인 산야와 은빛으로 살랑이는 역새 군락들을 보며 점점 가을이 깊어져 감을 느낄 수 있었다.

속초까지 가는데 어찌나 터널이 많은지 마성터널을 시작으로 터널의 연속이었다.

같은 이름으로 1~10까지 화춘터널, 공근, 동산, 북방, 내촌, 서석, 행치령, 상남, 기린, 서면, 양양, 청대 터널, 그중 인제군 기린면과 양양군 서면을 잇는 10,969m의 인제양양터널이 아주아주 긴 터널

이었다. 중간 어디쯤 통과할 때는 ‘백두대간 통과 중’이란 전광판 글씨도 볼 수 있었다. 세계에서 11 번째로 긴 터널이라고 한다. 아마도 50개쯤 터널을 지나지 않았나 싶다.

울산바위를 저 멀리 바라보며 속초 톨게이트로 진입하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코리아나 힐집과 만석힐집에서 푸른 바다를 보며 푸짐하게 점심을 먹은 후 낙산사를 탐방하였다. 각자 체력을 조율하며 낙산사경내를 산책하였다. 원통문을 지나 ‘꿈이 이루어지는길’에 들어서니 탐방객들의 각가지 기원메시지가 바람에 물결쳐 장관을 이루었다. 해수관음상,의상대, 흥련암 등을 둘러보았다. 의상대에서 동문 모두 흰 포말이 밀려오는 푸른 동해 수평선 멀리 가슴을 활짝 펴고 내일의 희망을 펼쳐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물결쳐 장관을 이루었다. 해수관음상,의상대,흥련암 등을 둘러보았다. 의상대에서 동문 모두 흰 포말이 밀려오는 푸른 동해 수평선 멀리 가슴을 활짝 펴고 내일의 희망을 펼쳐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해송이 죽죽 뻗은 낙산 해수욕장 해변가로 이동하여 12기,13기 선배님들의 6080(졸업 60주년 팔순기념) 축하행사를 하였다. ”생일 축하합니다” 열창 속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다같이 소망하였다.

저 멀리 산봉우리와 맞닿은 붉은 해너미 무리와 수줍게 웃어주는 상현달을 창밖으로 보면서 횡성 다래막국수 식당을 향하여 버스는 힘차게 달려 나갔다. 비빔 막국수로 식사를 마치고 새말 IC 원주 서울 이정표를 보며 용인 휴게소 ,압구정 도착, 해산하였다.

백합산악회 동문여러분

오늘 하루 속초나들이 즐거우셨나요?

속초까지 원거리였지만 동문들끼리 만남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였습니다.

11월 중순이지만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아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 내년부터는 백합산악회도 정기적으로 실행되기를 소망하며 선후배 동문님들 다음 만날때까지 건강하시고 덕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울산바위



2020년 기별 연회비와 기부금 명단

2020년 12월 31일

기수	기부자	금액	기수	기대표	기연회비
20기	주순희회장	1,000,000	12기	김숙자	300,000
19기	고명희동문	500,000	14기	박혜숙	300,000
	미시간동문회	US\$1,000 (1,167,000)	15기	정순영	300,000
			16기	박영숙	300,000
			17기	이자상	300,000
			18기	백복숙	300,000
			19기	오세은	300,000
			20기	황금자	300,000
			21기	김귀분	300,000
			22기	황옥자	300,000
			23기	문남숙	300,000
			24기	송미령	300,000
			25기	정혜숙	300,000
			26기	정옥순	300,000
			27기	마희경	300,000
			28기	전애자	300,000
			30기	이옥순	300,000
합계		2,667,000	합계		5,100,000

만원의 행복 2020년 결산 보고자료

♣“만원의 행복” 2020년 월별 입금내역♣

(2020.12.31일 현재)

월	입금인원	입금금액	합계
1월	45	880,000	880,000
2월	36	680,000	1,560,000
3월	40	560,000	2,120,000
4월	37	690,000	2,810,000
5월	40	510,000	3,320,000
6월	58	2,830,000	6,150,000
7월	40	620,000	6,770,000
8월	40	620,000	7,390,000
9월	34	560,000	7,950,000
10월	37	520,000	8,470,000
11월	42	1,080,000	9,550,000
12월	34	410,000	9,960,000

2020년 장학금 지급내역

지급일자	장학금 지급내용	금액	합계
2020.02.27	2020학년도 성적우수 신입생 11명 에게 장학금지급	500,000*11	5,500,000
	수도여고 발전기금 계좌로 송금 (농협:121501000114)	수수료 : 4,000	5,504,000

*“만원의 행복”기금에 동참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부재무 설경옥 (010 3225 10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원의 행복 동참기금계좌 : 국민은행 453801-01-114374 (수도여고 총동문회)

“만원의 행복” 입금자 누계액 (단위:만원)

(2020년 1월~ 12월 현재)

기수								합계
9기	김희손 12							12
12기	지정자 12							12
13기	구문자 12							12
14기	김근오 11							11
15기	안경자 12	박혜숙 5	이희자 12	김미자 12	김순자 12			53
16기	신애선 56	김동순 84	김선자 11	강선혜 12	임정자 12	박승련 12	윤숙영 12	199
17기	박인숙 12	이자상 12	장동선 12					36
18기	최혜원 12	계상희 12						24
19기	고명희 24	이윤희 8						32
20기	김용자 12	도계란 11	박진우 12	유동신 12	임승분 12	채정옥 12	주순희 12	83
21기	신선희 12	양정란 3	백형옥 12					27
22기	정봉임 1	백윤자 12	김영진 12	최옥화 1	김지일 12	송우섭 12	한숙자 12	134
	김옥선 12	김대영 12	고희숙 12	이지수 12	황옥자 12	정옥선 12		
23기	현석분 12	명재숙 12	문남숙 12	신병준 12	하은희 12	윤희원 12	박화숙 12	216
	김순옥 12	전은의 12	김현주 12	김길순 12	박일선 12	강의신 12	박영미 12	
	이은애 12	신영희 12	한재옥 12	조현숙 12				
25기	박지오 13	김문식 12						25
26기	신명희 12	이순자 12						24
27기	김향숙 12	한은희 12	김영득 12					36
30기	박경복 12	조인영 12	설경옥 12					36
35기	박노송 12							12
기수미상	김덕순 12							12
합계금액		76명/ 9,960,000원						996

2020년 만원의행복 계좌관리현황

(2020.12.31일 현재)

계좌번호	2019년 이월금액	입금금액	출금금액	잔액
453801-01-114374	26,802,682	9,987,001	5,508,140	31,281,543

2020년 만원의 행복 수입·지출 내용

(2020.12.31일 현재)

	수 입	지 출	잔 액
2019년 이월금액	26,802,682		
2020년 수입금액	9,960,000		
이자수입 (6월, 12월)	27,001		
2020학년도 성적우수 신입생 장학금 11명		5,500,000	
장학금 송금 수수료		4,000	
이자소득세(6월, 12월)		4,140	
합계	36,789,683	5,508,140	31,281,543



만원의 행복 입금계좌

국민은행 453801-01-114374
(예금주: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2021년 만원의 행복 장학금 기부자 현황

(2021.11.30일 현재)

기수						합계
12기	지정자 : 12					12
15기	김미자 : 12	김순자 : 12				24
16기	신애선 : 11	김동순 : 21	강선혜 : 11	임정자 : 8	박승련 : 11	71
	윤숙영 : 9					
17기	박인숙 : 11	이자상 : 3	장동선 : 11			25
18기	최혜원 : 11	계상희 : 12				23
19기	고명희 : 24					24
20기	박진우 : 11	유동신 : 11	김용자 : 11	임승분 : 11	채정옥 : 11	77
	도계란 : 10	주순희 : 12				
21기	신선희 : 11	백형옥 : 12				23
22기	백윤자 : 11	김영진 : 11	김지일 : 11	송우섭 : 11	김옥선 : 11	79
	김대영 : 2	이지수 : 11	황옥자 : 11			
25기	박지오 : 11	김문식 : 10	정혜숙 : 12			33
26기	신명희 : 11	나양균 : 24	이순자 : 12			47
27기	김향숙 : 8	한은희 : 11	김영득 : 12			31
30기	설경옥 : 12	조인영 : 12				24
35기	박노송 : 12					12
기수미상		김덕순 : 4				4
합계		41명 / 509				509

2021년 만원의 행복 장학금 수입·지출 내용

(2021.11.30일 현재, 단위 : 만원)

항 목	수 입	지 출	비 고
2020년 이월액	31,281,543	-	
2021년 입·출금	기부금 : 5,090,000 이자수입 : 15,045	이자세금 법인세 : 2,100 지방세 : 210 송금수수료 : 3,500	
2021년 장학금 지급	-	5,000,000	신입생 10명*500,000
총동문회기금 지급	-	15,000,000	총동문회계좌로 대체입금
합 계	36,386,588	20,005,810	잔액 : 16,380,778

2020년 작은물방울 장학금 결산보고서

2020년 12월 31일

수 입		지 출	
전년도 이월금	21,647,803	장학금 지급	10,110,000
회 비	12,660,000	3학년 4명 졸업축하금	800,000
예금이자	18,363	송금수수료	5,700
합 계	34,326,166	합 계	10,915,700
총 잔 액			23,410,466

2021년 작은물방울 장학금 회계보고서

2021년 11월 30일

수 입		지 출	
전년도 이월금	23,410,466	장학금 지급	8,700,000
회 비	7,075,000	3학년 졸업축하금(3명)	600,000
예금이자	9,614	송금수수료	10,800
합 계	30,495,080	합계	9,310,800
총 잔 액			21,184,280

2020년 재단법인 수도여고 동문장학회 활동내용

- ▲ 1월22일 : 2020년 제1회 이사회
 - 1.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 2. 2019년도 결산 감사 보고
 - 3.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 1월31일 : 모교에 설치 되어있는 ‘(재)수도여고 동문장학회 기부자명단’ 현판에 갱신내용 시공함
(2019년도 신규기부자와 기부금을, 기존기부자의 기부증액 명시)
- ▲ 2월 7일 : 제72회 졸업식에서 우수대입 예정자 10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총 21,000,000원 수여함
해당 이종숙 장학생 (3,000,000원) : 이시은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정지홍 아네스 장학생 (2,000,000원) : 장윤지 (고려대 한문학과)
동문장학회 장학생 (각 2,000,000원) : 8명
이윤재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학부) 김규림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정현지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백주연 (대구교육대 초등교육과)
장혜리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 김수영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손정우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장윤진 (연세대 의류환경학과)
- ▲ 2월 7일 : 재학생 (2019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자) 6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각 500,000원)
총 3,000,000원을 전달함
1학년 : 김나연 조수민 2학년 : 정민경 강민지 3학년 : 백주연 이시은
- ▲ 2월25일 : 서울시 교육청에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 ▲ 5월19일 : 동작세무서로부터 국고환급금 3,353,070원 받음
- ▲ 7월18일 : 동작구청으로부터 지방소득세 환급금 335,820원 받음
- ▲ 8월22일 : 재학생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자) 6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각 500,000원)
총 3,000,000원을 전달함
1학년 : 권민진 여승원 2학년 : 김나연 김민지 3학년 : 김민경 이현영
- ▲ 11월 2일 : 2020년 제2회 이사회
 - 1. 이사 3명(박승련 이사, 진영훈 이사, 최기호 이사)의 유임에 대하여
- ▲ 11월 9일 : 서울시 교육청에 ‘임원 연임 승인 신청서’ 제출
- ▲ 11월24일 :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임원 연임 승인’ 받음
- ▲ 12월 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유임 임원 (이사 3명) 등기 완료

장학재단 기부금 납입 현황

2019년 12월 1일~ 2021년 11월 30일

1. 2019년

12월12일 19기 차명옥 : 1,000,000원 (누계 : 2백 1십만원)

소계 : 1,000,000원

2. 2020년

1월 8일 16기 신애선 : 5,000,000원 (누계 : 1천 5백만원)

2월18일 14기 동문일동 : 3,000,000원 (누계 : 5백만원)

8월 4일 22기 최경숙 : 2,000,000원

8월 6일 19기 고명희 : 4,000,000원 (누계 : 3천 6백만원)

8월12일 남가주지부 : 2,361,740원 =2천불 (누계:11,383,532원=1만불)

9월 9일 16기 강선혜 : 500,000원 (누계 : 2백만원)

12월26일 16기 강선혜 : 200,000원(누계 : 2백2십만원)

소계 : 17,061,740원

3. 2021년

2월 3일 16기 강선혜 : 100,000원 (누계 : 2백3십만원)

4월 5일 16기 강선혜 : 200,000원 (누계 : 2백5십만원)

8월14일 19기 고명희 : 4,000,000원 (누계 : 4천만원)

9월 9일 16기 강선혜 : 500,000원 (누계 : 3백만원)

11월 3일 22기 이지수 : 1,000,000원 (누계 : 2백만원)

11월 4일 22기 김지일 : 1,000,000원 (누계 : 2백만원)

소계 : 6,800,000원

*누계표시는 장학재단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부해 주신 개인별 누계 금액입니다.

2021년 장학재단 임원

이사장 박승련 16기

사무국장 이지수 22기

재무위원 김지일 22기

2020년~2021년 총동문회 주요활동내용

- 2020. 2. 7 모교 제72회 졸업식(영상 진행) 참석
4명의 졸업생에게 작은물방울 장학금 전달.
동문장학재단에서 우수한 성적의 대입 예정자 10명에게 대입장학금 21백만 원 지급
- 2020. 4. 14 모교 신입생 입학식(영상 진행) 참석
우수성적 신입생 11명에게 '만원의 행복' 장학증서 수여
- 2020. 11. 11 2020년 제1차 기대표회의 개최
- 2021. 2. 5 모교 제73회 졸업식(영상 진행) 참석
졸업생 3명에게 작은물방울 장학금 수여
동문장학재단에서 우수한 성적의 대입 예정자 10명에게 대입장학금 21백만 원 지급
- 2021. 2. 25 전근하시는 모교 김연배 교장 선생님께 방문 인사
- 2021. 3. 2 모교 신입생 입학식(영상 진행) 참석.
우수성적 신입생 10명에게 '만원의 행복' 장학증서 수여.
새로 부임하신 이진영 교장선생님과 인사
- 2021. 3. 20 주순희 총동문회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기 1년 유임 발표
- 2021. 8. 27 모교 제48회 백합제 참석
- 2021. 11. 17 모교 고3 수능 수험생에게 수능을 격려하는 떡과 음료 및 수도여고 로고 핸드폰고리 전달
- 2021. 12. 8 특별임원회의 개최(차기총동문회장 인준)

실행위원 명단(2019년~2021년)

회 장	주순희 20기
수석부회장	백형욱 21기
총 무	정혜숙 25기
재 무	이순자 26기
부 총 무	김영득 27기
부 재 무	설경옥 30기
서 기	박노송 35기



표지작품 : 여고시절



김명숙18
雨史 金明淑

약력

-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초대작가, 운영위원 역임
- * (사)한국문인화협회 초대작가
- *죽농서단 초대작가 이사, 자문위원
-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 운영위원 역임
- *한국미술협회 경기지회 심사
- *추사 김정희선생 전국회화대회 심사
- *매일서예 문인화대전 심사
- *미술세계 대상전 우수상 수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초대작가전
- *한류 미술의 물결전(그리스)
-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 *회원전 초대전 다수 출품
- *한국미협 역동회 동지목연회 회원

편/집/후/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모든 일상이 멈춘 듯해. 대책 없이 숨죽인 채 보낸 시간들, '덧없이'라는 형용사를 그렇게 실감했던 적은 없었지요. 하지만 정지된 채 덧없이 보낸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을 《백합동문회보》를 만들며 알게 되었어요.

비록 한 해를 갈무리하는 동문회의 꽃, '총동문회의 밤'은 연 2년째 열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위드 코로나'에 힘입어 《백합동문회보》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활동들이 별로 많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어 어떤 기사로 내용을 채워야 하나 걱정했던 것은 기우였어요.

동문회 회장을 비롯, 임원들은 그동안 주어진 일들을 빠짐없이 감당하여 동문회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빈틈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연세를 잊게 만든 3기 김정숙 선배님의 일곱 번째 시집 출간을 축하드리며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소개할 수 있어 기뻛고, 동문회장을 두 번 역임하신 10기 김진수 선배님을 찾아 근황과 소중한 지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부가 궁금한 해외동문들을 대표해서 뉴욕과 일본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관광명소를 만든 15기 백정선 동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단된 기별 모임을 대신해 자연을 찾아 휴식과 힐링을 경험한 동문들의 사진과 짧은 글을 모아 <디카시>로 지면을 꾸며봤습니다. 모두가 많이 기다렸던 산악회 여행도 재개되어 후기로 남길 수 있어 다행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좀 짧았지만 동문홈피에서 자료도 찾았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동문들이 계셔서 한 해를 걸렸지만 2021년도 《백합동문회보 22호》를 발간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벼락시처럼 원고를 넘겨받고도 꼼꼼히 편집해주신 세원출판사에도 감사인사 전하며 편집위원들에게도 쓰담쓰담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2021. 12.

제22호 백합동문회보

편집위원 이복희17, 김창주19, 박경애19, 김영득27

발행일 2021년 12월 8일 **발행인** 주순희20 **발행처** 수도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 <http://www.sudolily.com>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02)2265-1141